

##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폴의 환경운동

정수복\* · 구도완\*\*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폴의 환경운동은 현저히 다른 특징들을 보여준다. 호주에서 는 야생의 자연을 지키려는 자연보호운동이 19세기말부터 발전해 왔고, 1960년대 이후 생태주의적인 운동은 물론 현대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환경운동도 생기 기 시작했다. 호주의 정부와 기업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환경운동 단체의 요구에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환경단체의 활동이 두드러 지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환경단체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자 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환경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정치의 영향 을 받지 않는, 통상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처리되는 ‘통상화’(routinization) 과정을 겪 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지배 아래에서도 독립적인 환경 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독립적인 환경운동단체가 정

\*크리스찬 아카데미 기획연구실장

전공분야: 사회운동론, 환경사회학

주요논문: 『녹색 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7

“미국과 멕시코 환경운동의 성장과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권 3호(1996년 겨울 호)

그외 다수

연락처: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02-766-73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전공분야: 환경사회학, 정치사회학

주요논문: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6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권 3호(1996년 겨울호)

그외 다수

연락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488-7678

dwku@keins.kei.re.kr

부의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항해 환경과 토착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싸워 왔다. 반면 싱가폴에서는 이와 같은 풀뿌리 환경운동이 미약하고, 중간층 중심의 자연보호운동이나 관변 환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까닭은 싱가폴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또한 권위주의 정부가 시민사회의 형성을 억압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환경문제의 특성, 경제성장의 수준, 정치구조,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1. 머리말

자본과 기술문명의 세계화와 함께 환경문제의 지구화, 세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상 어느 곳도 환경오염과 위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그래서 이제 위험사회라는 담론이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서구에서는 대개 1960년대 이후 그리고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이후 현대의 다양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환경운동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운동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그 운동의 특성은 크게 다룬다. 서구의 환경운동이 자연보호운동에서 출발하여 생태주의운동과 오염반대운동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해 온 반면, 개발도상국의 환경운동은 빈민운동, 원주민운동, 노동운동 등 전통적인 해방정치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차이와 차이 속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글에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폴의 환경운동을 살펴본다.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하면서도 유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으로부터 온 이민의 물결에서 시작해서 이후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러므로 호주에는 다원적인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호주는 국민소득의 수준은 선진국이면서 산업 구조는 제3세계처럼 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호주는 또한 광대한 면적에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환경운동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생태주의와 개발주의 사이의 이념적 대립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의식의 성장을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할 것이다. 그리고 호주의 주요 환경운동단체의 활동을 호주 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단체와 국제적 단체의 호주 지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환경운동에서 출발한

정당으로서의 녹색당 운동을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과 연방정부, 기업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제3세계에서 주목할만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의 환경운동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 서유럽의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우리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준거집단인 개발도상국의 환경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경제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이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비중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바탕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서구 환경운동 및 제3세계 환경운동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2. 호주의 환경운동

### 1) 호주 환경운동의 역사적 특징

#### (1) 원주민 문화와 광대한 자연

호주의 역사는 200여년 전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호주에 오기 전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식민주의의 역사는 이들 원주민 문화의 부정에서 출발하였다. 백인들의 정착은 자연을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백인 정착자들이 벌인 활동과 유사한 것이다. 새로운 대륙에 상륙한 백인들의 활동은 공포와 무지 그리고 교만이라는 요소들이 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백인들의 눈에 비친 '새로운 땅'은 문명사회의 인간의 의도에 맞게 정돈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것은 새롭게 길들여져야 할 야생의 자연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과 조화 속에서 살아 온 원주민들의 문

---

1)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폴 세 나라는 발전 수준의 차이만큼 환경운동의 특성과 발전수준도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가용한 자료의 양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글에서 엄밀한 비교연구는 할 수 없었다.

화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져 무자비하게 말살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무시(total contempt for this 'new' environment)에 기초한 백인들의 자연관은 수많은 토착 동식물들의 종을 사라지게 하였고 많은 야생적 자연을 사라지게 하였다. 200년 식민주의의 역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연과의 평형 상태에 있던 태고적 사회(primeval society)에서 생태적 불균형 상태의 에너지 과소비 사회로 변화하였다.

스즈키(David Suzuki)는 식민주의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리들의 문화는 우리가 정복한 땅 위에서 건설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국의 문화와 외국의 창조물들을 가지고 호주에 왔다. 우리는 결코 호주의 대지를 우리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상품이었다. 그 위에서 우리가 당분간 살아가는 상품으로서의 땅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채광하고, 댐을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였으며 그것을 팔았다. 이것은 우리를 원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만들었다. 원주민들에게는 대지는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고향인 것이다.”<sup>2)</sup>

## (2) 자연보호운동의 전통

호주 사회의 지배 문화가 자연에 대해 공격적인 문화였지만 다른 한편 소수문화로서의 자연보존운동(conservation movement)도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보존주의적 운동의 흐름은 1880년에서 1930년대 사이에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보존주의자들은 호주의 자연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909년에 만들어진 ‘야생보호협회’(Wildlife Preservation Society)의 활동이 그 보기이다. 이러한 보존운동의 흐름은 이후 호주 환경운동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었다. 프란시스 랫클리프(Francis Ratcliffe)는 그러한 흐름을 지적으로 대변한 실천적 이론가였다. 그가 1948년에 발표한 『날아다니는 여우와 표류하는 모래』(Flying Fox and Drifting Sand)라는 책은 호주에서의 잘못된 토지 이용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책은 출판 당시보다 현재 그 중요성을 더 인정받고 있다. 랫클리프는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의 풍경이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함으로써 초기의 백인 정착민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는 구분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경향

2) David Suzuki, "Suzuki, The Habitat Interview," *Habitat*, June, 9-12. 인용은 12쪽. Papadakis(1993: 74)에서 재인용하였음.

의 흐름이 호주의 국립공원 지정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호주에는 아직도 가공되거나 개발되지 않은 야생 상태의 본래적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환경운동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 말 이후 호주 사회에서 갑자기 성장한 환경보호의식은 이러한 저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호주는 광대한 토지에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제1세계적 특징과 제3세계적 특징 모두를 가지고 있다. 높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그리고 풍부한 자연 자원의 수출에 기반한 경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자연 자원을 발굴하여 수출하도록 압박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점이 호주의 환경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녹색당 상원의원인 밥 브라운(Bob Brown)은 호주가 “부유하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환경운동이 가장 혁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Brown, 1987: 41).

### (3) 도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Green-Ban Movement)

1960년대에 들어서 호주의 대도시들에 부동산 개발의 불이 일기 시작하면서 환경의식도 짹트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콘크리트와 유리 빌딩들의 등장은 도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시드니 시는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대규모 건물들이 비어 있는데도 정작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1971년 Builders Labourers' Federation(BLF)의 New South Wales 지부는 시드니 금융가의 투기용 대형 건물의 공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은 Jack Mundey, Bob Pringle, Joe Owens 등 세 사람의 노조 지도자들이었다. 건축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socially useful)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ecologically benign) 건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시드니의 헌터스 힐(Hunters Hill)의 캘리 숲(Kelly's Bush)을 파괴하면서 건축을 강행하던 제닝스(AV Jennings) 회사를 상대로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이 운동에서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이 운동은 1974년까지 42개의 건설 계획을 금지시켰으며 National Trust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지정한 100여 개의 건물을 지켜냈다. 이 운동에 의해 시드니의 명소인 Rocks, 초창기 유럽인 정착 지역, 백주년 기념공원(Centennial

Park), 식물원(Botanical Garden), 울루물루(Wooloomooloo) 지역 등이 건설의 와중에서 파괴될 위험을 모면하고 보존되었다. 이 운동은 1974년 BLF 본부가 New South Wales 지부의 지도부를 교체함으로써 막을 내렸지만 지역의 환경운동가들과 노동조합 사이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Burgman, 1993: 192-195).

## 2) 생태주의와 개발주의 사이의 이념적 대립

### (1) 생태주의의 등장

식민주의적 개발주의에 대응하는 생태주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성장의 시기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은 '잔인한 사기' (cruel deception)로서 성장을 지속하려는 세력들의 자기 정당화 이념이라고 보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환경주의자들이 볼 때 선진국들의 현재 GNP와 생활수준은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상태의 소비수준은 생존을 위한 생태학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생산과 소비의 양을 현저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를 더 할수록 환경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sup>3)</sup> 생태주의자들은 고도로 자급자족적이며 소규모의 협동적 공동체와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로부터 독립적인 지역 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대안은 가치관과 윤리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초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은 급진적 환경운동가들의 녹색 유토피아의 비전은 개발주의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 생태주의자들이 볼 때 이윤과 권력의 추구는 자연의 파괴로 이어지고 기술적 진보는 제3세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1985년 호주환경보전재단(ACF: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의 회장이었던 우튼(Hal Wootten)은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충분한 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

3) 캔버라 타임즈(Canberra Times) 1990년 9월 3일자에 테드 트레이너(Ted Trainer)가 기고한 글을 Papadakis(1993:73)에서 재인용하였다.

4) 지배적 윤리(dominant ethic)와 녹색 윤리(green ethic)를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사회변동을 위한 힘으로서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Brown & Singer(1996: 43-59)를 볼 것.

끼며 불만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우튼은 잉글하트(Ronald Inglehart)가 말하는 바 물질주의적 가치를 벗어나는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 가치를 제시하였다.<sup>5)</sup>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전문가들은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 GNP에 계산되지 않는 더 많은 정의와 아름다움과 행복과 사랑, 그리고 손대지 않은 야생은 원하고 있지 않다.”<sup>6)</sup> 호주 환경운동의 가장 큰 흐름의 하나는 야생(wilderness) 그 자체의 보전에 있는데 우튼은 “야생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풍요로움은 정신의 풍요로움이다.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야생지를 찾은 까닭은 그 안에서 정신적 풍요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야생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근본적 진리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sup>7)</sup>

다른 한편 생태주의자들은 식민주의적 자연관을 비판하고 원주민 문화와 자연의 친화적 관계를 부각시킨다. 카카두 국립공원(Kakadu National Park)의 채광 문제와 관련하여 크로肯버그(M. Krockenberg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땅에서 백색인종들은 이방인임을 느낀다. 오로지 원주민들만이 고향을 느낀다. 원주민들은 4만년 전부터 자연과 풍요롭고 복합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여기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쓰레기만 남기고 있다.”<sup>8)</sup> 타스매니아의 야생보호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상원의원인 브라운(Bob Brown)은 “우리는 야생에 맞게 만들어져 있고 인간의 모든 세포는 지구의 대지에 맞게 창조되었으며 수많은 야생의 세포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녹색의식(GA: Green Awareness)과 국민총생산량(GNP: Gross National Product) 사이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sup>9)</sup>

5)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해서는 Inglehart(1977, 1990)를 볼 것.

6) Hal Wooten이 Habitat 1985년 8월호에 발표한 글을 Papadakis(1993: 75)에서 재인용.

7) Papadakis(1993: 77)에서 재인용.

8) M. Krockenberger, “Kakadu Unleashing the wrath of Bulu,” Habitat, 1989, February, 4-6. Papadakis(1993: 76)에서 재인용.

9) Bob Brown, “Greening the conservation movement,” in D. Hutton(ed) *Green Politics in Australia*, (Sydney: Angus & Robertson, 1987: 11). Papadakis(1993: 76)에서 재인용. 기존의 경제적 합리주의에 도전하면서 녹색운동의 이념을 제시하는 Brown(1996)과 Brown and Singer(1996)도 볼 것.

## (2) 개발주의의 대응

생태주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세력은 광산업, 산림채취업, 제조업 등의 기업가들이다. 1980년대 이후 생태주의 의식의 성장과 환경운동의 강화에 대한 기업 쪽의 일차적 반응은 매우 적대적인 것이었다. 1989년 서부 광산 협동조합(Western Mining Corporation)의 사장인 몰간(Hugh Morgan)은 환경운동을 반자본주의적 운동으로 매도한다. 그는 환경운동을 매일매일 변화하는 경제 생활로부터 떨어져 있는 학자, 미디어 종사자, 공무원 등의 ‘잡담하는 계급’(chattering class)이 중심이 되어 권력을 향해 행진하는 혁명적 운동으로 보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생태주의가 자본주의와 사유 재산권을 침식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진단하고 있다.<sup>10)</sup> 기업 쪽을 옹호하는 월시(M. Walsh)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의 성공에 기여하는 바는 없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과의 수혜만을 누리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여 감정적인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특수한 문제들에 생태주의라는 과장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11)</sup> 개발주의자들은 ‘호주야생보호협회’(TWS: The Wilderness Society)의 타스매니아의 야생지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가리켜 “채광이나 채벌이 없는 국립자연공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토착종 생물 이외의 모든 동식물, 산책로와 온갖 여가 시설을 모두 없애려는 인간혐오주의적 운동이라고 공격하였다. 생태주의자들은 인간의 복지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영원한 조화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주의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태주의자들을 소수의 새로운 혁명주의자(new revolutionary cadre of environmentalists)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소수의 신홍종교집단(sect)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개발주의자들이 보기에 생태주의자들은 자기확신에 가득 차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타인과 구별되는 분리주의적 생활양식(seperatist lifestyle)을 가진 사람들로서 타스매니아의 밥 브라운, 리치몬드의 헬렌 캘디콧(Helen Caldicott) 등이 그러한 신홍종교의 사제들이라는 것이다(Papadakis, 1993: 81).

10) 생태주의와 반생태주의의 이념 논쟁에 대해서는 Papadakis(1993: 70-84)를 볼 것. 몰간의 자세한 발언 내용은 윗 글(70)을 볼 것.

11) M. Walsh, *Sydney Morning Herald* 1990년 10월 4일자. Papadakis(1993: 79)에서 재인용.

기업가들은 기존의 체제 안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며 물질적 풍요의 지속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생태주의자들이 추상적 원칙만 있지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체제가 기술적 진보와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환경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호주의 전경련인 '호주기업협의회' (Business Council of Austria)의 회장인 맥로그린(Peter McLaughlin)은 환경운동가들이 과학적 정보를 남용하여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부추기면서 시민들과 정치가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환경운동과의 대화를 요청하였다.<sup>12)</sup> 개발주의자들은 밥 브라운 등이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경제성장이 선결 조건이라고 보았다. 개발주의의 입장에서는 실업문제의 해결과 외채의 상환을 위해서도 경제성장은 필수적이다. 개발주의자들은 생태주의자들의 논리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과 환경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 3) 환경 의식의 변화와 특성

#### (1) 환경 의식의 성장

1992년 경기 침체기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환경문제는 실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쟁점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sup>13)</sup> 아무튼 환경 쟁점에 관한 관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에서의 환경의식의 성장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 말에 급성장 하였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1980년대 말 매스미디어의 환경문제 보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Pakulski, Tranter and Crook, 1996).<sup>14)</sup> 대중매체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대립적인 입장을 부각시킴으로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환경운동과 기업의 입장은 대변하는 활동가들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였다.

12) Peter McLaughlin, *The Age*, 1990년 2월 8일자. Papadakis(1993: 76)에서 재인용.

13) 이것은 호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ESD Secretariat)의 조사이며 Papadakis(1993: 205)에서 재인용하였다.

14) 호주의 신문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분석한 Pakulski & Crook(1996b)을 볼 것.

보기를 들어 1990년 광산업자들은 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40만 달러의 홍보비를 사용하였다(Papadakis, 1993: 72-73). 다른 한편 환경단체들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한 것은 1989년이다. 그전에 1983년 타스매니아의 프랭클린 댐 공사 건설을 반대하는 야생보호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1988년까지만 해도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고학력 도시 거주자에 한정되었다. 1988/9년 대중매체들의 환경문제 보도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범위, 강도,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보기들자면 1989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환경문제를 듣 사람이 7%에서 26%로 급증하였다. 1989년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은 다소 감소되지만 1976-1988년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표면적으로는 다소 침체된 듯이 보인다. 이것은 선거전에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인 이슈로 등장하지 않은 것과 매스컴 보도의 빈도수 감소와 관련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환경의식은 안정된 상태에 있으며 환경문제는 일상적인 관심사로 통상화(routinization)되었다(Pakulsky, 1996). 특히 자연보호와 야생보호 등을 중시하는 생태주의자들은 환경운동의 핵심 세력이다. 한편 환경운동에 대해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도시의 공해문제를 비롯한 생활상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들은 환경운동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녹색당에 지지표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환경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의 태도는 생태주의자들에 비해 가변적이다.

## (2) 관심의 변화: 녹색 쟁점에서 갈색 쟁점으로

호주에서는 환경운동의 쟁점을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한다. 산림채벌, 야생파괴, 토양오염, 생물종 다양성 등의 문제를 녹색 쟁점(green issue)라고 한다면 쓰레기 문제,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공해문제, 인구과잉 등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 갈색 쟁점(brown issue)이라고 부른다. 녹색 쟁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면 갈색 쟁점은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구체적인 쟁점들이다. 1970년대 이후 특히 1982-3년의 프랭클린 댐 저지운동으로 나타난 호주의 환경운동은 주로 녹색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그리고 녹색 쟁점은 야생의 보호자와 파괴자 사이의 대립을 냉는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녹색 쟁점을 다루는 환경단체들이 형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지지자는 교육받은 젊은 세대로서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좌파 정당을 선호하는 도시거주자들이었다. 그러나 야생지를 보전하고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는 녹색 쟁점 중심의 운동은 광산업, 산림업, 제지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기 침체와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넓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환경문제가 보다 넓게 확산된 것은 1988~9년 대중매체들의 환경문제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미디어는 환경문제의 보도 양만을 늘인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해석 틀(frame)을 바꾸어 놓았다.<sup>15)</sup> 다시 말해서 언론들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유해폐기물, 근해와 해안의 오염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산림채벌 반대, 댐건설 반대 등으로 전개되었던 녹색 쟁점을 대신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부각시켰다. 특히 시드니의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해변의 오염과 근해의 오염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환경 쟁점이 대두되었다.<sup>16)</sup> 그리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다.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쓰레기 문제는 생활과 건강에 관련되는 ‘갈색 쟁점’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생물 다양성 보존, 야생 보호, 산림 파괴 반대 등의 ‘녹색 쟁점’에 대한 관심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녹색 쟁점으로 시작되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제2의 물결에서는 갈색 쟁점이 부각된 것이다.

15) 환경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요구 만들기 (claim-making)와 의제설정(agenda-sett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서는 Hannigan(1995)과 Papadakis(1996)를 볼 것.

16) 호주의 경우 여가 생활의 대부분이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해변문화’ (beach culture)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한 운동이 ‘호주를 깨끗이’ (Clean Up Australia) 운동이고 이 운동은 ‘세계를 깨끗이’ (Clean Up the World)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 4) 주요 환경운동단체의 활동

1980년대의 호주환경운동은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환경운동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경우에 속한다(Pakulski, Tanter, Crook, 1996: 2).<sup>17)</sup> 타스매니아의 프랭클린 땅 저지운동, 머레이 달링 강 오염을 둘러싼 운동, 뉴 사우스 웨일스의 프레이저 섬 보호운동 등은 대표적인 운동 사례들이다.<sup>18)</sup> 이러한 운동 과정을 통해 임시적이고 자발적인 활동들이 조직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고 운동 단체들로 성장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환경단체는 호주 안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체와 외국에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환경단체의 호주 지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주 내에서 형성된 자생적인 단체로 '호주환경보전재단' (ACF: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과 '야생보호협회' (TWS: The Wilderness Society), '호주녹색화운동' (Greening Australia), '생명의 나무운동' (Trees for Life)을 들 수 있고 국제적 환경운동단체의 호주 지부로 그린피스(Greenpeace, Australia)와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세계야생보호기금(WWF: World Wildlife Fund)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네 단체의 형성 배경, 주요 활동, 이념과 전략, 회원수의 증감, 성공 사례, 사회변동에 따른 운동의 변화, 운동의 성과(정책의 변화, 의식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 (1) 자생적 환경운동단체

###### 가) 호주환경보전재단(ACF)

호주환경보전재단(ACF)은 1963년 에딘버러의 공작이 아프리카의 야생 보호를 위해 호주에도 세계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 지부를 만들 것을 권고한 데서 출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란시스 랭클리프가 개입하게 되었고 그는 호주의 야생 보호를 위해 전국적인 민간 환경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1967년에는 ACF가 창설될 수 있었다. 랭클리프는 핵무기 철폐, 인종간의 평화와 더불어 자연

17) 독일과 프랑스의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정수복(1993)을 참조하고 미국의 환경운동은 정수복 (1996b)을 볼 것.

18) 이 운동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Doyle & Kellow(1995: 202-263)를 볼 것.

의 보전이 인류의 3대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968년 *The Australian Quarterly* 3월호에 실린 “Conservation and Australia”라는 글에서 호주에서 환경 의식의 형성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그 첫째는 호주가 ‘큰 나라’라는 신화이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 둘째, 광산 개발과 도시 개발의 열기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환경 파괴의 속도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적인 제도의 미비가 자연 보전 활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현실 분석 위에서 랫클리프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조직으로서의 ACF를 만들어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시민들의 기금 형성을 바탕으로 자연 보전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CF, 1996). ACF는 호주 환경단체 중에서 환경문제의 제도화에 기여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제도권 밖에서 사회운동 단체로 활동하면서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 나) 호주야생보호협회(TWS)

호주야생보호협회(TWS)는 지구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증진하여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인간의 개발의 손이 닿지 않은 야생 지역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protecting, preserving and promoting wilderness). 야생이 갖는 권리를 주장하고 야생의 파괴를 방지하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야생보호협회는 1974년 타스매니아(Tasmania)의 페더 호수(Lake Pedder)가 수력발전을 위해 파괴될 위험에 대비해 타스매니아 남서부의 보호를 위해 모인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호주야생보호협회에 따르면 야생이란 “근대적 산업문명과 식민지 사회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지역이자 수백 만년 동안의 진화 과정의 결과로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체계의 과정을 담기에 충분히 넓은 지역이다”(TWS, 1996). 그것은 열대 정글, 산, 들, 초원, 습지, 바다의 갈대숲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야생 지역은 호주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수 천년 동안 보전되어 왔는데 식민지화 이후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직 남아 있는 야생 지역을 지키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다.

## (2) 국제 환경 단체의 호주 지부

### 가) 그린피스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의 호주 지부(Greenpeace Australia)는 1978년에 만들어졌다. 1990년 그린피스 본부는 호주 그린피스를 강화하기 위해 맥알리스터(Steve McAllister)라는 유능한 사무총장을 파견하였다. 그는 사회변동은 강력한 상징과 조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그린피스를 호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린피스는 직접 편지, 신문 잡지 등의 광고를 통해 회원 증가 사업을 벌였는데 1991년 말에 그린피스의 회원 수는 13만으로 늘어났다. 호주환경보전재단이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라면 그린피스는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독자적이며 가능한 직접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해 왔다. 그린피스는 핵, 유독성 폐기물, 기후와 해양 생태 분야에서 비폭력적 직접행동을 통해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Greenpeace Australia, 1996).

### 나)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지구의 친구들 호주 지부는 1972년에 시작해서 1974년에 총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조직 형태를 갖추었다. 호주 내의 여러 지역 지부들은 관심에 따라 서로 다른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지역에 따라 에코시티, 교통, 관광, 습지, 물, 폐기물, 반핵, 유기농과 음식물 공해, 에너지, 생명공학, 원주민의 권리 등이 이들의 활동 영역이다. 이들은 ACF나 TWS와 달리 도시 안에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다.

## 5) 환경운동과 녹색당

환경단체는 압력단체로서 여론에 호소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환경운동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서 녹색당을 만들자는 논의가 일어나게 된다. 호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호주의 정당정치는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과 자유당(Liberal Party)-국민당(National Party) 연합이라는 두

세력이 중심에 있고 민주당(Democratic Party)과 녹색당(Australian Greens) 등의 소수 정당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서로 다른 정당이 집권할 수가 있다. 호주의 환경운동이 정치세력화되는 과정에는 기존의 정당들이 환경 쟁점을 다루는 태도와 방식과 녹색운동의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980년대 프랭클린 땅 공사 저지 운동에서 연방의 노동당 정부는 야생 보호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자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노동당은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선거에서 환경운동 지지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의 입장이 환경운동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녹색당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녹색당은 환경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인 민주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취하고 있다.

타스매니아의 페더 호수(Lake Pedder) 보호 운동에서 시작하여 1972년 호바트(Hobart)에서 만들어진 '타스매니아 연합 집단' (The United Tasmanian Group)은 세계 최초의 녹색당이다. 이 정당은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는 단일 쟁점 녹색정당(single-issue green party)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녹색정당 운동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여러 주에서 지역 녹색당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전개되었다. 여러 번의 선거에서 다양한 형태의 녹색정당들이 참여를 거듭하다가 전국적인 규모의 녹색당이 만들어진 것은 1992년 시드니에서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1993년 연방 의회에 진출하였다. 그런데 녹색당의 진출은 선거방식이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이점에 의해 녹색당이 소규모 정당으로 제도화된 것이 녹색당의 미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노동당과 민주당이 환경문제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정당의 고유한 성격이 희석되고 있다(Jaensch, 1996).

이후 녹색당은 환경문제라는 하나의 이슈(single issue)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건강, 노사관계, 인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호주 민주당과의 연대를 추구하면서 환경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각 영역에서 녹색당 고유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의 녹색당은 전 세계 60여 개의 녹색당 가운데 하나로서 몇 개의 의석에 만족하면서 의회에 활기를 제공하는 소수 정당이 아니라 구정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녹색 정치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언젠가는 녹색 정부(Green government)를 수립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Brown & Singer, 1996: 2).

### 3.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의 환경운동

환경문제는 그 사회의 정치 경제체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1850년 이전에는 동남아시아의 삼림은 울창한 자태를 자랑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 상당 부분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 식민지시대에는 제국주의 본국의 원목 수요 때문에, 그리고 독립 이후에는 토착자본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때문에 삼림파괴가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삼림파괴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커피, 차, 야자기름, 쌀, 사탕수수와 같은 현금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플랜테이션 농업이었다. 이러한 경제 구조의 틀은 식민지시대부터 만들어졌다.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체계는 상업적인 작물생산을 위해 조직되었고 이 체계는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근대국가가 확립되면서 확정된 국경은 중앙정부와 엘리트들의 변방지역에 대한 지배를 더욱 확고하게 해 주었고, 지역의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의 공업화는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등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공업지역의 대기, 수질오염문제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떠 오르기 시작했다(Bryant and Parnwell, 1996: 1-20).

동남아시아 지역의 환경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의 정치구조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권위주의적 정부의 지배 아래 있고,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재력은 지배집단의 억압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단체들은 스스로의 자원동원능력을 바탕으로, 혹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양보로 생긴 정치적 기회를 이용하여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1)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

##### (1) 역사

말레이(Malay) 반도와 사라왁(Sarawak), 사바(Sabah) 지역은 19세기에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된 이후 근대적인 국가로 바뀌기 시작했다. 영국정부는 풍부한 자원

을 가진 이 지역을 본국의 원료공급지로 활용했다. 자급자족 경제는 무너지고 그 대신 광업과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경제의 중심지는 전통적인 말레이반도의 내륙지방에서 서해안으로 옮겨졌다. 영국정부는 관료제를 도입하여 식민지의 토지 행정, 세무 행정, 무역, 개발업무를 조직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이 영국의 지배에 순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세기에 접어 들면서 토착민들과 이민들 사이에서 정치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슬람 개혁주의, 중국인들의 무정부주의, 그리고 말레이인들의 개혁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2차대전이 일어나면서 말레이시아는 짧은 기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전후 영국은 말레이 연방(Malayan Union)을 만들려고 했으나 말레이시아인들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말레이인들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말레이아 연방(The Federation of Malaya)을 건설했고 1963년에 사라와크와 사바지역과 연합하여 말레이시아라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다(Malaysia Ministry of Information, 1994).

정부 출범 이후 지배정당은 1969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줄곧 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해 왔다. 1971년 이후 지배세력은 민족전선(Barisan Nasional)을 형성하고 신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인종에 관계없이 빈곤을 뿐리뽑고 인종에 따른 직업 차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신 경제정책 덕분에 1970년대에는 팔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국민차, 철강산업, 정유산업 등의 중공업 육성정책을 시작했다. 또한 선진국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즉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라와크의 열대우림 벌목반대를 외치는 사라와크 토착민들과 선진국 정부와 환경운동단체들에 대항하여 선진국 책임론과 개발도상국의 개발권리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Malaysia Government Homepage).

이와 같이 경제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많은 환경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미 식민지시대부터 파괴되기 시작한 열대 우림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급속하게 파괴되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는 삼림파괴율이 낮아졌지만 사라와크와 사바에서의 파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수력발전 댐의 건설은 삼림과 토착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수질오염 문제 역시 심각해서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과 도시가 밀접해 있는 서해안의 클郎 벨리(the Klang

Valley)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이외에도 소음, 해양환경오염, 유해 폐기물 등의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Singh, 1994: 2-7).

## (2) 환경운동단체의 현황

말레이시아는 단일집권 정당(Barisan Nasional)이 건국 이후 줄곧 지배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나 싱가폴에 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이 발달했다. 이 때문에 일찍이 1970년대부터 독립적인 환경운동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자 환경운동단체들은 점차 대중의 지지를 얻고 정부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가장 오래된 환경운동단체는 1954년에 만들어진 말레이시아 자연협회(Malaysian Nature Society: MNS)이다. 그리고 1972년 유엔 세계환경선언이 발표된 후, 1974년에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말레이시아 환경보호협회(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ety Malaysia: EPSM)가 조직되었다. 이외에 말레이시아 환경의 친구들(Sahabat Alam Malaysia: SAM)이 1978년에 결성되었고, 세계자연기금 말레이시아 지부(Worldwide Fund for Nature, Malaysia: WWFM), 페낭 소비자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CAP) 등의 단체들이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Singh, 1994: 13). 1989년에는 말레이시아 자연협회(MNS), 말레이시아 환경, 기술, 발전센터(Center for Environment, Technology and Development Malaysia: CETDEM), 말레이시아 소비자단체연맹(Federation of Malaysian Consumers Association: FOMCA), 말레이시아 환경보호협회(EPSM)가 모여 말레이시아 환경보전네트워크(Malaysia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Network: MECN)을 결성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주요 환경 잇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나중에 세계자연기금 말레이시아 지부(WWFM), 그리고 말레이시아 환경연구관리협회(Environmental Research and Management Association, Malaysia: ENSEARCH)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다(Singh, 1994: 17).

환경운동의 초기에 정부는 환경운동단체들을 반정부단체로 낙인찍고 직접적인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정부의 입장은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정치구조는 여전히 억압적이고 폐쇄적이다. 정권교체는 기대하기 힘들고, 언론은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환경운동단체들은 야당과 가능하면 거리를 멀리 하려고 애를 써 왔다.

공개적인 로비가 불가능하고, 정당을 통한 이해대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운동단체들은 서구의 대의정치와 다른 형태의 자원동원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EPSM은 자신들의 캠페인에 야당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 왔다. 말레이시아 자연협회(MNS), 세계야생기금 말레이시아지부(WWF) 같은 단체들은 의회를 통한 압력보다는 관료와의 사적인 관계를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Eccleston and Potter, 1996: 54).

### (3) 환경보호협회(EPSM)의 활동 사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싱(Singh)이 이끄는 환경보호협회의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 환경운동단체의 활동을 살펴보자. 이 단체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잇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왔다. 최근에 와서는 과학기술환경부의 환경국 등 정부부처와 함께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EPSM이 중요한 환경단체이기는 하지만 이 단체의 회원은 백명 내외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지금은 과학기술환경부의 환경국과 부분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 단체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다.<sup>19)</sup> EPSM은 정책개혁을 위한 압력집단이지만 서구에서처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모금과 여론을 형성하여 로비를 조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여러 법들을 통해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을 탄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미국 주류 환경운동단체의 법안상정과 소송을 둘러싼 활동과는 다르지만, 온건하면서 실질적인 다양한 자원동원방식을 택했다. 편지 보내기 운동, 서명운동, 독자투고, 기자회견, 감시작업 보고서 발간, 소규모 시위, 제한적 불매운동 등이 이 단체가 사용한 방법들이다. EPSM은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표 1>과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해 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EPSM은 환경보호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이 단체가 명백하고 독립적인 환경운동의 경험을 축적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들어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국

---

19) 특히 1987년 내무보안법(the Internal Security Act: ISA) 사태 때에 정부가 체포한 108명의 인사 가운데 3명이 환경운동가들이었다(Singh, 1994: 14).

〈표 1〉 환경보호협회(EPSM)의 활동사례

운동의 종류	명칭	시기	활동내용
반별목운동	엔다우 룸핀 (Endau-Rompin) 캠페인	1977-78	파항(Pahang) 주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지역에 벌목을 허가한 데 대해 여러 환경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의 결과로 이미 파괴된 만2천 에이커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벌목을 중단시키는 성공을 거두었다.
소음반대운동	반콩코드기운동	1977-78	영국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콩코드기의 싱가폴 취항을 막는 데 성공했다.
댐반대운동	템블링(Tembeling) 국립공원 댐반대운동	1982-83	말레이시아 반도의 유일한 국립공원에 수력발전 댐을 세우려는 계획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바쿤(Bakun)댐 반대운동	1985-90 1993-94 현재	사라왁 지역에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한 거대한 댐을 건설하려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폐기물반대 운동	파판(Papan)과 부킷메라(Bukik Merah) 방사성폐기물 반대운동	1984-87	이 운동은 처음에는 파판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폐기물을 생산하는 부킷 메라 인근의 토리움(thorium) 생산공장으로 잇슈를 확대시켜 나갔다.
	유해폐기물 통제운동	1985-94 현재	유해폐기물의 생산과 처리에 대한 법률 입안과 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오염예방운동	환경영향평가 실천 캠페인	1988-94 현재	환경파괴를 사후에 처리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압력을 넣어 왔다.
자연보호운동	페낭(Penang) 언덕 보전운동	1990-94 현재	MNS, SAM 등의 단체들과 함께 페낭 언덕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출처: Singh(1994)

은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 자문에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 주정부는 여전히 이 단체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조건 속에서 반정부적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체제적이라는 의미로 연결된다. 언론에 의해 이렇게 낙인찍히면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EPSM은 환경교육과 같은 활동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단체의 대표 싱(Singh)은 이 문제에 대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가장 보수적인 세력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두껍게 화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일관되게 밝힐 것인가? EPSM이 부드럽고 공격적이지 않게 보이기 위해 힘들게 노력할 때 원래 메시지는 사라지고 사실은 모호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얘기하는 것보다 단순한 증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더 쉽다” (Singh, 1994: 18).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을 얘기할 때 싱을 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1974년 EPSM을 창립할 때 회장으로 내정된 박사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싱은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후 20년 이상 이 단체를 이끌어 왔다. 그는 1978년 쿠알라 룸푸르 시내를 얼굴에 수술용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그는 이 작은 시위를 통해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1985년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 기술, 발전센터(CETDEM)를 만들었다. 이 센터의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작은 유기농장이다. 이 농장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어 그것을 50% 정도 비싼 값에 팔고 있다. 싱은 모범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서 칭찬을 받는다. 그는 원칙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지만 정부의 자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운동의 길을 택했다. 그는 정부의 환경자문회의 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다. 정부와 야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는 “비판적 협력”이라고 응수한다(Hiebert, 1995: 86).

#### (4) 환경운동의 세가지 사례: 바쿤(Bakun) 댐 반대운동, 방사성 폐기물 반대운동(ARE), 사라와크 열대우림 보호운동

##### 가) 바쿤 댐 반대운동

앞에서 보았듯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와 사라와크, 사바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사라와크와 사바지역은 열대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반도 서안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라와크 주정부는 삼림벌목과 수력발전댐 건설 등을 통해 발전된 서부 말레이반도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계획의 중심은 동아시아의 전력 공급기지를 이루는 것이다. 타입(Tan Sri Abdul Taib Mahmud) 사라와크 총리는 그 계획의 하나로 바쿤(Bakun)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는 이 사업을 미국의 후버댐에 비유하면서 바쿤댐을 건설해야만 서 말레이시아와 같은 생활수준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Tsuruoka, 1994: 68-69). 그러나 이 댐은 싱가포르 크기 만한 700km<sup>2</sup>를 수몰시키고, 적어도 5천명의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이 댐의 규모가 위낙 커서 논쟁이 그치지 않자 정부는 원래 계획을 축소하여, 1995년 7월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공개했다. 이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주의자들이 혹평하였을 뿐만 아니라, 7천 주민들의 대표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주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95년 12월, 이 댐에 대한 ‘환경승인’을 했다. 그러나 1996년 7월, 고등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쿤댐은 환경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Rowell, 1996: 262).

##### 나) 방사성 폐기물 반대운동: 부킷 메라 지역

부킷 메라 지역의 1만 주민의 지지를 받은 8명의 주민대표들은 1985년 2월 이포(Ipoh) 고등법원에 자신들의 마을 주변에 있는 아시아 희토(Asian Rare Earth: ARE)라는 회사가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 보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공장은 생산과정에서 몇 가지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방사능 오염의 위험 때문에 이러한 생산공정은 일본에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쓰비시(Mitsubishi)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공장의 피해는 실로 참혹했다.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병이 주변지역보다

40배나 높았고, 유산과 유아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1985년 10월, 고등법원은 이 공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사성 물질의 생산과 저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987년 2월에 국가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회사에 인가를 내 주었다. 1990년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 회부되었고, 32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고등법원은 이 공장의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ARE의 183명의 노동자와 국제적인 주주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ARE는 부킷 메라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Rowell, 1996: 263).

이 사례에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소송을 통한 환경운동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비당파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대법원 판사들이 정치적인 인사들로 임명되고 이들이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판결을 통해 환경운동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 다) 사라와크 열대우림 보호운동

사라와크 지역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끈 열대우림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지역의 벌목은 1960년에 210만  $m^3$ 에서 1970년에는 610만  $m^3$ 로 그리고 1980년에는 840만  $m^3$ 로 늘어났다가 1991년에는 무려 1,940만  $m^3$ 로 증가했다 (Arentz, 1996: 202). 사라와크의 숲은 약 1만명에 이르는 폐낭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많은 원주민들은 삼림파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Tsuruoka, 1994: 70-71). 이들 토착민들은 문맹률이 높고, 어떤 정치적 대의 체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목을 몸으로 막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sup>20)</sup> 정부는 토착민들의 운동을 제1세계의 조정을 받는 반정부운동, 공산주의운동으로 규정지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배세력들의 경제적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의 고위인사들 중 상당수는 사라와크의 벌목 허가권을 갖고 있다 (Rowell, 1996: 265-67). 사라와크 주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그리고 국제적 목재산업 관련기구는 열대우림 파괴의 주범을 이 지역의 유목민으

20) 이러한 곤경을 전세계에 알린 사람은 부르노 맨서 (Bruno Manser)라는 스위스인이었다. 그는 수 년간 폐낭지역에서 원주민들과 살면서 벌목 반대운동을 벌였다. 맨서는 정부와 벌목업자들의 공적 1호가 되었다.

로 규정지었다. 이러한 시각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세계은행,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와 같은 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Eccleston, 1996: 125).<sup>21)</sup>

반면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운동조직들은 상업적인 별목이 토착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말레이시아 환경의 친구들(Sahabat Alam Malaysia: SAM)은 이 가운데 가장 강경한 단체로서 별목 자체에 대해 반대하면서 지속가능성이란 바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환경보호협회(EPSM)는 별목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고 생태적으로 불건전한 별목에만 반대했다. 환경의 친구들(SAM)은 국제적 환경운동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가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억압을 받아야 했다. 반면, 세계야생기금 말레이시아지부(WWFM), 말레이시아 자연협회(MNS) 등은 단체들은 지역관리들에게 접근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택했다(Eccleston, 1996: 128).

페낭 주민들과 말레이시아 환경의 친구들을 선두로 한 환경운동단체들은 1987년 처음으로 별목 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벌였다. 이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12,800 헥타아르의 원시림을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거기서 페낭주민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Arentz, 1996: 209-10). 이러한 부분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목을 계속하고 있으며 선진국 환경운동단체들을 생태 제국주의자들로 낙인찍으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반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진국의 삼림파괴에는 눈감으면서 후진국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통해 자국민과 제3세계의 동의를 얻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와 함께 상업적인 나무만을 별목하는 현재의 별목 방식은 지속가능한 별목이라고 주장하면서 삼림파괴의 주범을 유목민으로 낙인찍었다.<sup>22)</sup> 이와 같이 이미 확립된 정치적 경제적

21) 그러나 1만명의 원주민 가운데 순수한 유목민은 오륙백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자급자족 농업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Tsuruoka, 1994: 70-71).

22) 정부는 선택적 별목을 지속가능한 별목으로 규정한다. 선택적 별목은 상업적으로 쓸모 있는 나무만을 선택적으로 별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전체 별목보다는 낫지만 삼림의 구조를 파괴 시켜 삼림에 피해를 준다. 열대 삼림파괴를 완전한 별목으로 정의하면 농업이 삼림파괴를 놓는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상업적 별목은 단지 2%만 차지할 뿐이다. 그러나 선택적 별목으로 인

이해관계는 삼립파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낙인찍고 환경운동단체들이나 국제기구의 정치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해외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의 경우와 달리 급속히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의 자립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제환경운동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선진국 정부 역시 미온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승자와 무력한 패자의 권력구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Eccleston, 1996: 139).

## 2) 싱가폴의 환경운동

### (1) 경제성장,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

말레이시아 반도 아래의 작은 섬나라 싱가폴은 영토가 좁고 자원은 부족하지만 독특한 권위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아래 높은 경제성장을 과 1인당 국민총생산을 자랑하고 있다. 싱가폴의 1인당 국민소득(GDP per head)은 1994년도에 23,492달러에 이르렀다. 한국(8,540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리콴유(Lee Kuan Yew)가 이끄는 People's Action Party(PAP)는 1959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지금까지 싱가폴을 지배하고 있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5-96: 3-11). 급속한 경제성장은 두터운 중간층을 만들었고 적어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된 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큰 기여를 하였다.<sup>23)</sup> 이와 함께 사회복지도 향상되었다. 문자해독률은 1980년에 83.5%에서 1990년에는 90.1%로 높아졌고, 주택소유율은 58.9%에서 90.2%로 높아졌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주택의 크기도 점차 커져 왔다(Deparment of Statistics, Singapore; Rodan, 1992: 372에서 재인용).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sup>24)</sup> 1968년 이래의 선거결과를 보면 집권당의 일당지배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80년 선거 때까지는 집권당이 모든 의석을 갖고 있었으나 1984년 선거부터는 야

한 삼립악화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역전된다(Eccleston, 1996: 125).

23) 1983년부터 1993년 사이에도 연평균 6.9%의 성장을 유지했다(World Resources Institute et al., 1996: 167).

24) 싱가폴 국민들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이 의석을 얻기 시작했고 집권당의 득표율도 6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중간층의 성장과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집권당의 수혜를 받은 중간층이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폴 정부는 오랫동안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조직의 형성을 억압해 왔다. 그러나 싱가폴에서도 이제 중간층 중심의 사회운동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싱가폴 자연협회(Nature Society for Singapore: NSS), 행동과 연구를 위한 여성협회(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and Research: AWARE), 회교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Muslim Professionals: AMP) 등이 그것이다(Rodan, 1992: 379-80).

## (2) 환경운동 단체

앞에서 보았듯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싱가폴 국민들은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환경운동 또한 점차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고, 정치적 기회구조가 달혀 있기 때문에 과격하고 급진적인 환경운동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에 국가환경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Environment)를 조직하고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조직은 1995년 싱가폴 환경회의(Singapore Environment Council)로 개편되었다. 싱가폴 환경회의는 주로 개인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운동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매달 elements라는 회지를 발간하여 환경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싱가폴 앞바다의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도 벌였다. 이 조직 아래에는 지역사회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ttee),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산업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단체는 학교, 녹색단체들, 지역사회센타(Community Center), 언론 등을 대상으로 활동한다(Singapore Environment Council).

싱가폴 환경회의 외에도 싱가폴에는 크고 작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1990년대에 조직되었고, 많은 회원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작은 단체들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몇몇 단체를 살펴보자. 싱가폴 자연협회(Nature Society, Singapore)는 1954년 말레이시아 자연 협회의 지역조직으로 창립하여 1991년에 이름을 바꾸었다. 이 단체는 위기에 처한 생물에 대한 연구와 보호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일반회원과 함께 자연 속의 휴식과 오락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700명에 이르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단체는 조류 서식지 보호를 정부에 건의하여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다. 집권여당(PAP)은 환경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전문가 집단이 없기 때문에 1990년에 NSS가 정부에 제출한 '싱가폴 자연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적극 수용하였다. NSS는 최근에 싱가폴의 가장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카립 봉수(Khatib Bongsu)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 지역에 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1997년 1월 발표했고, 이에 대해 싱가폴 자연협회는 150종의 조류와 1만여 마리의 철새들의 서식지인 이곳을 이전처럼 자연보호구역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저항하고 있다(<http://www.netlink.co.uk/users/aw/obc/arorien2.html>). 이 단체는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조용하게 로비를 벌이고, 정부에 대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반대는 가능한 한 피하고 있다. 이 단체는 천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지만 압력집단이라기보다는 전문가집단에 가깝다(Rodan, 1992: 380).

이외에도 동물학대 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와 같은 조직도 약 4,5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동물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른 한편 ENGENDER(Center for Environment, Gender and Environment)라는 단체는 환경과 여성, 발전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연구하고 활동하는 작은 단체이다. 이 단체는 환경문제가 좁은 지역의 문제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National Council on the Environment).

싱가폴의 환경운동은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과 달리 강도가 높지 않고 정부와 별로 대립적이지도 않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의 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4. 맷음말

1990년대 말의 시점에서 보자면 이제 호주에서 환경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회제도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초기의 사회운동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이 통상화되었다는 것은 환경운동이 이념적으로 산업사회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사회운동' (New Social Movement)이 되기

보다는 체제 내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구체적 실천의 차원에서 개입하는 이익단체 또는 압력 단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입장은 환경운동의 주장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설비하여 환경문제를 체제 내로 통합시키면서 환경과 경제 두 가치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도화시키는 것이었고 그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었다. 정부는 환경운동단체와 기업 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동의 이해관심과 목표를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이것을 정책과 제도로 표출하였다. 서로 대립적인 세력인 환경단체와 기업가단체는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되는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환경운동단체의 활동이 공익에 증진이 된다고 판단하여 환경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환경단체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역할을 견지하면서도 서로 이해 가능한 부분을 찾아가는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환경운동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각종 기관들, 언론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제기하고 다루는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환경운동 단체의 요구에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환경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환경단체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전환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단체, 정부, 기업 3자가 상호 협력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환경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상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사회체계 속에 통상화(rutinization)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체제와 풍부한 자연자원 혹은 인적 자원 때문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고, 싱가폴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선발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 왔다. 두 나라는 정도 차

---

25) 새로운 사회운동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에 대해서는 정수복(1993), 구도완(1996)을 볼 것.

이는 있지만 모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독립적인 환경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독립적인 환경운동단체가 정부의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항해 환경과 토착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싸워 왔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서 초국적 자본과 정치경제적 지배집단의 이익에 맞서, 댐 건설 반대운동, 삼림벌채 반대운동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싱가폴에서는 이와 같은 풀뿌리 환경운동이 미약하고, 중간층 중심의 자연보호운동이나 관변 환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환경운동의 특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로<sup>26)</sup> 그 나라의 환경문제의 특성, 정치구조와 경제성장의 수준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세 나라의 환경운동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호주의 환경운동은 자연보호운동과 급진적 생태주의 운동, 그리고 현대 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한 환경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야생에 가까운 풍부한 자연 안에서 중간층 중심의 자연보호운동은 생태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80년대 말 이후 환경오염, 특히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같은 환경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현대적 환경운동도 발전하고 있다. 호주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진한 녹색운동과 인간중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는 연한 녹색운동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돕슨, 1993). 이러한 환경운동의 특성은 호주 사회가 서구의 식민지 사회로서 서구적 문화, 경제, 사회체계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구조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념과 활동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조직들이 성장해 왔다. 경제적인 안정, 풍부한 자연자원, 열린 정치구조, 활발한 시민사회, 이런 요인들이 오늘 날의 호주 환경운동의 조건이 되었다.

말레이시아에는 도시의 환경오염문제, 농촌의 자연파괴로 인한 원주민의 생존위기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의 형태, 주체, 운동방식도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중요한 점은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부정의, 환경오염의 차별적 피해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환경

26) 환경운동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로는 객관적 환경오염, 환경재난, 환경의식, 환경보도, 정치구조 등을 들 수 있다(구도완, 1996).

운동은 1970년대부터 성장했으나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전지구적인 환경의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운동이 점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에 다양한 풀뿌리 환경운동과 전문가 환경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구조가 억압적이지만 인도네시아와 같은 독재국가에 비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구조 아래에서 환경운동 조직은 경우에 따라 국제적인 여론, 혹은 국내의 연줄망을 통한 로비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보호와 토착민 보호라는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싱가폴은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격렬한 환경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도시국가이고 원주민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심각한 오염문제가 없다는 점이 격렬한 풀뿌리 환경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주된 원인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구조의 폐쇄성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온건한 형태의 자연보호운동으로 이루어져 왔다.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호주의 환경운동이 서구의 환경운동과 비슷하게 자연 그 자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진한 녹색운동과 인간을 위한 환경운동의 결합이라면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은 민중의 생존을 위한 저항적 풀뿌리 환경운동과 온건한 환경운동의 결합이다. 그리고 싱가폴의 환경운동은 권위주의 정부의 후원을 받는 온건한 시민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환경문제의 특성, 경제성장의 수준, 정치구조,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참고문헌

- 구도완(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서울: 문학과지성사.
- 돕슨, 앤드류(1993), 『녹생정치사상』, 민음사.
- 정수복 편저(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6a),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6b), “미국과 멕시코 환경운동의 성장과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Arentz, Frans (1996), “Forestry and Politics in Sarawak — The Experience of the Penan”, Howitt, Richard, John Connell and Philip Hirsch ed. *Resources, Nations and Indigenous Peoples — Case Studies from Australasia, Melanesia and Southeast Asia*,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1996), “ACF Protecting the environment for 30 Years”.
- Australian Greens (1996), *Overview of Policies*, Canberra: Australian Greens National Campaign Coordinator.
- Bean Clive and Kelly, Jonathan (1995), “The Electoral Impact of New Politics Issues, The Environment in the 1990 Australian Federal Elec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27, No. 3: Pp. 339-356
- Brown, Bob (1996), “Sanate First Speech,” *Hansard*.
- \_\_\_\_\_ and Peter Singer (1996), *The Greens*, Melbourne, Text Publishing Company.
- Burgmann, Verity (1993), *Power and Protest, Movements for Change in Australian Society*, NSW: Allen and Unwin.
- Crook, Stephen & Pakulsky, Jan (1995), “Shades of Green: Public Opinion on Environmental Issues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0: PP39-55.
- \_\_\_\_\_ (1996), “Environment and Public Opinion in Australia: Routinization of Concerns” Paper prepared for the 1996 TASA Conference, Hobart 4-7 December 1996. Section: Environment.
- Doyle, Timothy & Kellow, Aynsley (1995), *Environmental Politics and Policy Making in Australia*, Melbourne: Macmillan.
- Eccleston, Bernard (1996), “NGOs and Competing Representations of Deforestation as an Environmental Issue in Malaysia”, David Potter ed. *NGOs and Environmental Policies: Asia and Africa*, Frank Cass Publisher.
- Eccleston, Bernard and David Potter (1996), “Environmental NGOs and Different Political Contexts in South-East Asia: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Parnwell, Mike and Raymond Bryant

- ed. (1996), *Environmental Change in South-East Asia: People, Politic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Greenpeace Australia, 1996, "About Greenpeace: An Overview of the Vision, Campaigns, History, Funding and Structure of Greenpeace".
- Hannigan, J.A. (1995), *Environmental Sociology*, London: Routledge.
- Heyzer, Noeleen et al. ed. (1995), *Government-NGO Relations in Asia: Prospect and Challenge for People-Centered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Press Ltd.
- Hiebert, Murray (1995), "Environment' s All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158 N.29 p.86.
- Inglehart, Ronald (1977), *Silent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laysia, Ministry of Information (1994), "Malaysia: Introduction" in *Malaysia 1994* (<http://asnic.utexas.edu/asnic/countries/malaysia/malasia.html>).
- Malaysia Government Homepage (<http://www.jaring.my/msia/back/history.html>).
- National Council on the Environment, *Green Groups in Singapore*.
- Pakulski, Jan, Tranter, Bruce and Crook, Stephen (1996), "Environment and Public Opinion in Australia: Routinization of Concerns," Paper prepared for 1996 TASA Conference, Hobart 4-7 December 1996. Section: Environment.
- Pakulski, Jan and Tranter, Bruce (1996a), "Environmental Concerns in Australia: Their Structure and Social Location," Manuscript prepared for a book.
- \_\_\_\_\_, (1996b), "The Environment in Australian Print Media 1983-1993," Paper prepared for 1996 TASA Conference, Hobart 4-7 December 1996. Section: Media.
- Papadakis, Elim (1993), *Politics and the Environment, The Australian Experience*, NSW:Allen and Unwin.
- \_\_\_\_\_, (1996), *Environmental Politics and Institution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arnwell, Mike and Raymond Bryant ed. (1996), *Environmental Change in South-East Asia: People, Politic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Rodan, Gary (1992), "Singapore: Emerging Tensions in the 'Dictatorship of the Middle Class'", *The Pacific Review* V.5 N.4,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warne, Stuart (1992), "The Green Accord in Australia," *Capitalism, Nature, Socialism*, Vol. 3, No. 2: Pp. 11-17.
- Rowell, Andrew (1996), *Green Backlash: Global Subvers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New York: Routledge.
- Singapore Environment Council, *Profile*.
- Singh, Gurmit (1994), "Malaysian Environmental NGOs and Their Roles in Sustainable

- Development”, A Paper Presented in Seminar on Public-Private Responses for A Green Malaysia, Kuala Lumpur.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5), *Country Profile: Singapore*, New York: EIU electronic publishing.
- The Wilderness Society, 1996, “Information Kit” .
- Tsuruoka, Doug (1994), “Awakening Gian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21, v. 157 n. 29 pp. 68-71.
- World Resources Institute, UNEP, UNDP, and the World Bank (1996), *World Resources: A Guide to the Global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 The Environmental Movements of Australia, Malaysia and Singapore

Chung, Soo-Bok\* and Ku, Do-Wan\*\*

The environmental movements of Australia, Malaysia and Singapore are very different. The Australian Nature conservation movement began early in the 1880s. Since the 1960s ecological movements and urban environmental movements facing modern pollutions has been developed.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companies were antagonistic to th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As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have proliferated and public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issues have diffused since the late 1980s, they tried to cooperate with these 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environmental movements have been gradually routinized. The Malaysian environmental movements developed independently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dependent environmental groups have struggl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natives' quality of life against

---

\* Chief of Research Dept., Korea Christian Academy

Research Area: Study of Social Movements, Environmental Sociology

Major Publication: *Ecological Imagination for Green Alternatives*, MunHakGwajisungSa, 1997

“Growth and Change of Environmental Movements of USA and Mexico”, *Social Science and Policy Studies*, vol. 18, no. 3 (Dec. 1996)

tel: 02-766-7326

\*\*Associate Fellow, EIA Division

Research Area: Environmental Sociology, Political Sociology

Major Publication: *Sociology of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MunHakGwajisungSa, 1996

“Environmental Policy of USA and Mexico”, *Social Science and Policy Studies*, vol. 18, no. 3 (Dec. 1996)

1049-1 Sadang-Dong Dongjak-Gu, Seoul, 156-090, Korea

tel: 02-3488-7678

e-mail: dwku@keins.kei.re.kr

government's authoritarian development strategy. On the contrary the environmental movements of Singapore are not so strong as those of Malaysia. It is hard to find radical grassroots environmental movements in Singapore. Instead, We can find nature conservation movements based on middle class and 'Government Organize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GONOGs)'. It is because Singapore doesn't suffer from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are ruled by very authoritarian regime. These differenc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ors such as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roblems, economic conditions, political structures,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ies.